

활주로 역방향 동체착륙... 비행기 내 긴급상황 규명 초점

전남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 강제 수사 나서 생존자 2명 곧 참고인 조사... 로컬라이저 관련 의혹도 밝힐 듯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일 경찰이 사고 관련자들에게 과실지시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경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오전 9시부터 업무상 과실지시상 혐의로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제기된 모든 의혹 규명도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고와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경찰이 확보에 나선 압수대상은 항공기 운항관련 서류, 정비관련 서류 뿐 아니라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명 '로컬라이저' 설치 등을 포함한 시설에 관련된 기록과 서류 등이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의 교신 내용 등도 압수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사고기와 관제탑의 교신내용은 사고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보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8시 59분 사고기는 1차 착륙 시도를 하다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 (Mayday-국제 긴급신호)를 선언하고 복항 (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충돌(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사고기는 기존 활주로(01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한 선회를 포기하고 가장 가까운 역방향 활주로(19 활주로)로 동체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와 관제사의 상호 합의는 없

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아채고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관제탑 관제사와) 상호합의돼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가장 가까운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한 것은 비행기 내부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긴급한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 양쪽 엔진에 모두 문제가 발생해 사고기 내의 전력 셧다운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경찰은 생존자인 2명의 승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명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의혹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로컬라이저는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테나 모양의 시설로, 전파를 쏘 항공기가 활주로 가운데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착륙유도시설, 방위각 지지장치라고도 한다.

예초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규정상 안전구역 내부에 설치된 시설로 드러났다.

또 외국 항공전문가들은 콘크리트 지지대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이번 사고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인허가와 관련된 공공기관 등이 어디인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제주항공이 최근 5년 새 정비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바람에 부실 정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일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운영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가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장-관제탑 교신 '블랙박스 음성 자료' 추출 작업 완료

국토부 사조위, 본격 사고 분석 비행자기록 분석 6개월 걸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기장과 관제탑 간 음성 교신 상황 등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 음성 자료 추출작업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기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중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자료의 음성파일 전환이 끝나 본격적인 사고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CVR에는 조종사 간 대화, 조종사와 관제탑 간 교신, 기내 경고음 발생 여부 등이 담겨 있어 사고 직전 상황을 설명해 줄 '핵심 열쇠' 중 하나로 꼽힌다.

사조위는 CVR 최대 용량인 사고 직전 2시간 분량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CVR에 기록된 음성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다만 CVR 내용이 사고 경위 조사의 핵심

자료로 취급되는만큼 녹음된 내용을 즉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다른 블랙박스인 비행자기록장치(FDR)는 일부 파손돼 국내에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전달해 조사한다. FDR은 사고 이전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 비행 경로, 엔진 성능, 랜딩기어 작동 여부 등이 기록돼 있으나, 수거 당시 전원을 연결하는 선(커넥터)이 분실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FDR 자료 추출 작업은 6개월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측에 최대한 신속한 작업을 요청할 방침이라 이르면 한 달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FDR을 미국에서 분석할 때 걸리는 시간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국 이상 일정이 협의되는 즉시 사조위 측 조사관도 파견될 계획"이라며 항공기 제작사에 유리하게, 편향되게 조사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 (착륙유도시설, 둔덕)는 지난해 개량 공사를 거쳤으며,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맡았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량 공사 당시 용역업체 발주서에는 '계기착륙 시설 설계 시 파손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즉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10여개 콘크리트 기둥(지지대) 위에 30cm 콘크리트 덮개를 덮는 등 시설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둔덕 위 안테나에 대해 부서지기 쉽게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3일에는 사고기 동일 기종(보잉 737-800)을 운영 중인 6개 항공사의 항공기 엔진-랜딩기어 정비 이력, 운항-정비 기록 실태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마무리된다. 오는 8일까지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이뤄진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공항에 퍼지는 온정...선결제 확산·무안주민 커피 나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 연일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 주민들은 마을 기금으로 커피를 나누고 1300여만원에 달하는 선결제가 이어지는 등 참사 속에서도 온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안군 망운면 툇머리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기금 100만원을 들여 커피 200잔을 구매해 이날 참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배부했다.

주민들은 유족에게 나눔을 하기 위해 커피를 구매했지만 이미 전국에서 이어진 온정의 손길로 공항 내 각종 식품과 물품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과 소방, 언론인 등 외부에 머무는 이들을 위해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진남원 무안 툇머리마을 이장과 주민 4명은 이날 오전 7시와 오전 10시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았다. 200잔의 커피는 10여분만에 모두 동이났다. 진 이장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더 마음이 쓰였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을발전기금을 의미있게 사용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유족을 비롯해 추운 겨울 고생하는 사고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결제가 이어졌던 무안국제공항내에 있는 한 커피숍에는 5일동안 1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선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커피숍 키오스크와 계산대 앞에는 '봉사자 및 유가족 분들께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제공해드립니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계산대 앞 장부에 수기로 이름과 잔 수를 적고 커피를 가져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1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선결제됐다. 금액은 4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선결제 시 대부분 의명을 요구하고 있어 주체는 알 수 없지만 희생자를 추모하는 애도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

광주광역시의료협회

광주광역시 의사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최정섭**

대표전화. 062_529_2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8번길 25(신안동)